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 환관?

임미영*

1. 들어가는 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세르세스(Artaxerxes, 기원전 465~424년, 『개역개정』 아닥사스다)¹⁾ 제이십년 기술르월에 자신이 수산궁에 있는 자로서 ‘왕의 술 관원’이라고 말했다(느 1:11). 마쉬케(מַשְׁכֶּה)라 불리는 이 직책을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로(창 40:1-23; 41:9),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궁에서 본 그의 신하들 가운데 있는 술 관원들(왕상 10:5; 대하 9:4) 만나볼 수 있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가나안, 아시리아 등에서 발견되는 왕의 연회 장면이 묘사된 다양한 유물 가운데 왕의 술 잔을 들고 서 있는 인물들을 목격할 수 있어 이 직책이 고대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이어즈(J. M. Myers)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아시리아 왕의 잔을 들고 있는 이가 환관 혹은 내시(이후 환관으로 통일하여 기술함)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역시 환관이라고 주장해 왔다.²⁾ 그들은 느헤미야가 아버지와 형제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 Bar Ilan University, Israel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국제성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adiofpooh@hanmail.net.

1) 본 논문은 최근 학문적 경향을 반영하여 국가나 사람 이름을 표준한국어사전 번역에서 사용한 명칭으로 기술하였다.

2) J. M. Myers, *Ezra, Nehemiah*, The Anchor Bible 14 (New York: Doubleday, 1965), 96; 그 외 W. F. Albright, “A Brief History of Judah from the Days of Josiah to Alesander the Great”, *BA* 9(1946), 11;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59), 382; S. J. Schultz, *The Old Testament Speaks* (New York: Harper & Row, 1960), 268; B. H. Kelly, *Ezra, Nehemiah, Esther, Job*, Layman’s Bible Commentary 8, (Louisville: John Knox Press

아내와 자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든가, 왕후를 섬긴 점(느 2:6), 알렉산드리아 코텍스에서 술 맡은 관원을 그리스어로 οἶνοπόρος로 기록했지만 바티칸 코텍스와 시나이 코텍스의 경우 환관이라는 의미의 εὐνοῦχος를 사용하고 있음³⁾ 등을 이유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술을 맡은 환관이었다고 정의했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대중적인 검색이 이루어지는 위키피디아 사전 역시 느헤미야가 환관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⁴⁾ 일부 학자들은 환관이 종교적으로 배타되었기 때문에(레 22:24; 신 23:1) 느헤미야가 자신을 술 맡은 관원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⁵⁾ 심지어 슈미트(E. F. Schmidt)는 페르세폴리스의 벽부조 가운데 왕의 뒤에 서서 수건을 들고 있는 사람을 환관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주장했다(<사진 1>).⁶⁾ 윌슨(M. Wilson)은 같은 모습의 사람을 페르세폴리스의 벽부조에서 총 6번 발견할 수 있으며 모두 느헤미야를 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⁷⁾

<사진 1>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된 벽부조, 이란.



출처: www.alamy.com

그러나 야마우치(E. Yamauchi)와 몇몇 학자들은 환관은 히브리어로 חַמְדָּים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과 별개의 명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고증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몇 가지 문헌적, 고고학적 자료

1962), 27.

3) A.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62), 923.

4) "Nehemiah", <https://en.wikipedia.org> (2023. 7. 10.).

5) J. M. Myers, *Ezra, Nehemiah*, 96;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382.

6) E. F. Schmidt, *Persepolis I: Structures, Reliefs, Inscrip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169.

7) M. Wilson, "ARCHAEOLOGY AND THE BIBLE: NEHEMIAH APPEARS SIX TIMES AT PERSEPOLIS", <https://www.academia.edu> (2023. 6. 20.).

를 제시했다.⁸⁾ 그러나 그는 여전히 느헤미야가 환관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⁹⁾ 그러므로 본 논문은 모호하게 결론을 맺은 야마우치의 논문을 보강하고 발전시켜 고대 중동 지역의 왕실 문화에서 느헤미야의 정확한 직책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마쉬케(술 맡은 관원)와 사리스(환관)의 용어를 비교하고 고대 중동 지역에서 그들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후 고대 중동지역에 남겨져 있는 왕들의 알현, 연회, 사냥, 전쟁 장면 등을 살펴보고 마쉬케와 사리스를 찾아 두 직책 사이의 비주얼적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특별히 율슨과 슈미트에 의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의 환관이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된 페르세폴리스 벽부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대 역사가들(예: 헤로도투스, 크세노폰, 크세티아스 등)이 기록한 페르시아 왕실의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가 맡았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끌어내고자 한다.

2. 직책 비교

2.1. 술 맡은 관원, 마쉬케(מַשְׂכֵּה)

히브리어 마쉬케(מַשְׂכֵּה)는 ‘마시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필 유형의 동사 מַשְׂכֵּה에서 파생한 명사로 정확한 뜻은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다. 마잘(B. Mazar)은 아람어 אִשְׂקִיָּ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1961년 갈릴리호수 동쪽 해변의 엔게브에서 발견한 토기 조각에 기록된 아람어 אִשְׂקִיָּא를 그 예로 들었다.¹⁰⁾ 콰스만(T. Kwasman)은 אִשְׂקִיָּא는 아람어의 15개 외래어 가운데 하나로 아카드어 šāqū(‘음료를 전달하는 자’)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았다.¹¹⁾

<그림 1>
아비도스
상형문자A9



출처:
Wikimedia
Commons

-
- 8) E.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ZAW* 92 (1980): 132-142; T. C. Mitchell, “Eunuch”, M. C. Tenney, ed.,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II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975), 415.
- 9) E.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142.
- 10) B. Mazar, et al., “Ein Gev: Excavation in 1961”, *IEJ* 14 (1964): 1-49. 마잘(B. Mazar)은 이 토기 조각에 기록된 샤키야가 기원전 9세기 아람의 벤하닷이나 하사엘의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주장하였다.
- 11) T. Kwasman, “15 Loanwords in Jewish Babylonian Aramaic: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M. J. Geller, ed., *The Archaeology and Material Culture of the Babylonian Talmud* (Leiden: Brill, 2015), 333-386.

이집트어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wb'* 으로 머리에 잔 혹은 그릇을 지고 있는 사람의 상형문자를 사용한다(<그림 1>). 파피루스 라이덴 348(Papyrus Leiden 348)에서 *wb'* 은 *dp irp* 즉 ‘포도주를 맛보는 자’라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¹²⁾

『개역개정』이 마쉬케를 술 맡은 ‘관원’으로 번역한 이유는 느헤미야를 포함하여 마쉬케로 등장하는 3명(창 40:1-23, 41:9; 왕상 10:5; 대하 9:4; 느 1:11)이 모두 ‘왕의’ 혹은 ‘솔로몬의’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음료를 전달하는 대상은 왕으로, 직장은 왕실이었다. 창세기 40:11에 의하면 마쉬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의 손에 포도주를 담아 잔을 드리는 것이다. 키루스(Cyrus, 기원전 559~530년, 『개역개정』 고레스) 2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키루스의 교육(*Cyropaedia*)」 I.iii. 8-9에서 크세노폰(Xenophon, 기원전 434~355?년)은 페르시아 왕실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잔에 포도주를 우아하고 정갈하게 따라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기술했다.¹³⁾ 왕실에서 마쉬케의 위치는 왕의 생일을 기념하여 복직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로(창 40:20-21), 왕이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명할 때 가까이 있어 다른 해몽가를 추천할 수 있는 자리였다(창 41:9-13). 그러므로 마쉬케는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기면서 그가 입에 대는 술을 직접 관장하는 신하이다. 고대 왕들의 경우 음식을 통해 암살이 번번이 일어났고 당연히 술을 맡은 자는 왕의 신의가 두터운 자로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왕이 직접 이 관직을 하사한 예가 이라크 라르사에서 발견된 벨트-블룬델 프리즘(Weld-Blundell Prism)의 “수메르 왕의 목록”에서 발견된 바 있다.¹⁴⁾ 이 목록에 의하면 수메르의 고대 왕조 중 키쉬 4번째 왕조(기원전 2363-2259년)의 두 번째 왕이었던 우르-자바바(Ur-Zababa)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이유도 없이 사르곤(Sargon)을 그의 술잔을 드는 자(*šāqū*)로 임명했다. 그러나 우르-자바바는 자신이 임명한 사르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사르곤에 대한 암살을 명령했다.¹⁵⁾ “수메르 왕의 목록”에는 우르 자바바가 왜 사르곤을 두려워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왕이 직접 임명한 자리였다는 것은 그 신하가 꽤 유능한 자였지만 동시에 정치

12) J. Vergote, *Joseph en Egypte: Genèse chap. 37-50 à la lumière des études égyptologiques récentes* (Louvain: Publications Universitaires, 1959), 35-37.

13) E.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133.

14) S. Langdon, *The Weld-Blundell Collection, vol. II.: Historical Inscriptions, Containing Principally the Chronological Prism W-B. 444*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3).

15) The Electronic Text Corpus of Sumerian Literature, “The Sargon Legend”, <http://etcsl.orinst.ox.ac.uk> (2023. 6. 20.).

적으로 왕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살 아남은 사르곤은 기원전 24-23세기 사이 수메르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고 아 카드 왕국을 건설했다. 왕에게 위협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의 또 다른 예를 우리는 이집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원전 1155년 람세스 3세(Ramesses, 기원전 1186-1155년)가 메디넷 하부 서쪽 탑의 왕실 하렘(여인들의 궁)에 있을 때 암살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주도자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인 티예(Tiye)였다. 그녀는 후계자로 선택된 람세스 4세 대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했다. 이 음모를 위해 그녀는 하렘을 넘어 왕실 행정부 전체의 관리들을 매수했다. 음모에 가담한 신하들의 우두머리는 식료품 저장고 책임자였던 페벤키멘(Pebekkamen)이었으며 28명의 가담자 중에는 술 맡은 관원 이니니(Inini)와 메셀수레(Mesedsure)가 있었다.¹⁶⁾ 음모를 꾸민 자들은 람세스 3세를 죽이는 것은 성공하지만 티예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는 것은 실패했다. 공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당했다. “하렘 음모(Harem Conspiracy)”라고도 불리는 이 유명한 사건은 창세기 40장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죄명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집트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도 왕에게 범죄를 저질러 함께 감옥에 갇혔다. 술 맡은 관원은 혐의를 벗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시 왕실로 돌아갔지만 떡 굽는 관원은 끝내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다.

술 맡은 관원이 정치적 음모에 가담하고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행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한다. 술 맡은 관원은 왕궁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왕을 보필했고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산헤립과 남왕국 유다의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기스를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던 산헤립은 예루살렘으로 군사들과 함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보냈다(왕하 18:17). 랍사게는 유다말을 할 줄 아는 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큰소리로 아시리아 대왕의 말을 전달했다(왕하 18:19-37). 그런데 여기서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다르단(דַּרְדָּן)은 아시리아어 *tartānu*로 장군을 말하며, 랍사리스(רַב־סָרִיס)는 뒤에서 다시 언급될 환관의 우두머리 즉 환관장을 말한다. 랍사게(רַב־שָׂקֶה)는 아카드어 *rab-šāqū*의 차용어로 술 맡은 관원의 우두머리(혹은 관원장)이다.¹⁷⁾ 왕실에서 근무했던 술 맡은 관원은 한 명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이었을 확률이 높으며 이들 그

16) H. Goedicke, “Was Magic Used in the Harem Conspiracy Against Ramesses III?”, *JEA* 49 (1963), 71-92; S. Redford, *The Harem Conspiracy*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2), I-XXIV.

17) E.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133.

룹에는 관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쉬케를 언급한 성경 구절들에서도 처음 마쉬케가 등장할 때는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여러 명 중 하나였다고 보인다.¹⁸⁾ 랍사세가 왕의 말을 대변한 것처럼 페르시아 아르타세르세스 왕의 술 말은 관원 느헤미야도 왕의 조서를 들고 총독들을 만나 왕의 말을 전달했다(느 2:9). 그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거하고 있었고 왕과 왕비에게 포도주를 드리면서 섬기는 일을 했으며 서슴없이 자신의 고민을 왕에게 고할 수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느 2 장).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 페르시아의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느헤미야를 돕도록 했다는 것은 그가 지방의 총독과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말한다.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페르시아의 왕실에는 외국인들도 높은 관직에 오른 예들이 이미 있어 그의 지위와 대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니느웨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외경 토비트 1:22에서도 토비트의 조카 “아히카르(Ahikar)는 아시리아 산헤립 왕의 술잔을 들고 그의 인장을 보관하며 회계 관리를 맡았으므로, 에사르하돈이 그를 다시 임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외국인 등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¹⁹⁾

2.2. 환관/내시, 사리스(סָרִיס)

환관의 히브리어 단어는 사리스(סָרִיס)이다. 이 단어는 아카드어 ‘샤 레쉬(ša rēši, 수메르어 LÚ.SAG)’에서 차용한 외래어로 ‘왕의 머리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²⁰⁾ 아카드어 문헌에서 샤 레쉬는 자주 ‘샤 지크니(ša ziqni)’ 즉 ‘수염이 있는 사람’과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샤 레쉬는 수염이 없는 사람, 나아가 거세로 인해 수염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사람을 의미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처음 사리스가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37:36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집트의 보디발을 칭하는 명칭 중 하나다. 그는 ‘사리스 파르오 사르 하트바힘(סָרִיס פָּרְעוֹה שַׂר הַטְּבָחִים)’으로 이집트 왕의 사리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역개정』에 의하면) 친위대장이었다. 보디발을 환관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그가 부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더불어 이집트에서는 아직까지 환관이 있었다는 문헌적,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²¹⁾ 다만 기원전 5세기 이후의 이집트 비문에 ‘페르시아의 사리

18) Ibid., 132. 각주 no.1.

19) Ibid., 133에서 재인용.

20) O. N’Shea, “Royal Eunuchs and Elite Masculinity in the Neo-Assyrian Empire”, *Near Eastern Archaeology* 79:3 (2016), 214.

스'라는 명칭이 등장할 뿐이다.²²⁾ 그러나 존키레(F. Jonckheere)는 여전히 이집트의 자료에서 환관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²³⁾ 그는 거세를 한 환관은 수염이 없고 신체적으로 여성적이거나 일반인보다 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집트의 벽부조에서 왕이나 고위층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 환관으로 보이는 남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 머리털은 물론 수염과 모든 털을 면도했던 이집트 남자들의 관습을 기억한다면 수염이 없다고 그를 환관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스스로 거세를 한 경우는 신체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²⁴⁾ 혹 남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벌은 무조건 거세를 하는 것이었다.²⁵⁾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왕상 22:9; 왕하 8:6, 9:32; 대하 18:8)과 남왕국 유다(왕하 23:11, 24:12; 렘 29:2, 34:19, 38:7; 렘 41:16) 왕실 모두에서 우리는 사리사라 불렀던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야마우치는 그들을 모두 환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²⁶⁾ 그는 문맥의 정황상 그들 중 일부는 높은 지위의 장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왕상 22:9; 왕하 8:6, 9:32, 23:11; 대상 28:1; 렘 34:19, 52:25). 그러나 열왕기하 20:17-18과 이사야 39:7에 의하면 남왕국 유다는 분명 왕실의 환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미래에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왕실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바빌로니아의 환관장(רַב־סְרִיָּס) 아스부나스가 이스라엘 자손 중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와 왕의 앞에 서는 사 레쉬로 삼았음을 볼 수 있다. 다니엘 1:4는 그들의 조건이 왕족과 귀족 중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 이 조건에 맞는 소년들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이름을 하사받았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으며 왕의

21) G. E. Kadish, "Eunuchs in Ancient Egypt?", 61, J. A. Wilson, ed., *Studies in Honor of John A. Wil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9); E.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136.

22) G. Posener, *La première domination perse en Égypte* (Le Caire: Institut français d'archéologie orientale, 1936), 118; D. B. Redford, *A Study of the Biblical Story of Joseph(Genesis 37-50)* (Leiden: Brill, 1970), 201.

23) F. Jonckheere, "L'Eunuque dans l'Égypte pharaonique", *Revue d'Histoire des Sciences* 7:2 (April-June 1954), 139-155.

24) *Ibid.*, 140.

25) *Ibid.*

26) E.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136.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다. 이렇듯 외국사람, 특히 전쟁 포로의 경우 정복 국가의 환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 기원전 484~약 425년)의 「역사」 3. 92에 의하면 바빌로니아는 다리우스왕에게 은 천 달란트와 500명의 환관들을 제공해야만 했다.²⁷⁾ 이스라엘의 왕실에도 구스 출신의 환관이 있었는데(렘 38:7) 그는 히브리어 이름을 하사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은 채 그저 에벳멜렉(עֶבְתַּמֶּלֶךְ) 즉 ‘왕의 신하’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구스 출신으로 이름 없는 이였지만 그는 왕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예레미야를 구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렘 38-39장).

환관들의 권력과 행정적 위치는 아시리아의 문헌에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아시리아의 니네베 궁전에서 발견된 문헌들 SAA(State Archives of Assyria) 중 IV, 63은 에사르하돈(Esarhaddon, 기원전 681~669년)과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 기원전 669~631년) 아래에서 환관장을 지냈던 샤-나부-슈(Ša-nabû-šū)가 군대를 지휘하도록 위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⁸⁾ 살만 에셀 4세(Shalmaneser, 기원전 782~773년)와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Tiglathpileser, 기원전 744~727년)의 재위 동안 환관으로 있었던 벨-하란-벨리-우수르(Bēl-Harran-bēlī-ušur)는 니네베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도시를 건설하고 신전을 세웠다(<사진 2>).²⁹⁾ 그는 자신의 업적을 석비에 남기면서 왕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아시리아 왕들의 모습과 유사하게 표현했는데 왕들처럼 화려한 의상을 입고 손가락을 들어 신들의 상징을 지목하여 축복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왕들과 다

<사진 2> 환관장 벨-하란-벨리-우수르의 석비,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출처: www.alamy.com

27) Ibid., 138.

28) I. Starr, *Queries to the Sungod: Divination and Politics in Sargonid Assyria*, State Archives of Assyria 4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0).

29) O. N'Shea, "Royal Eunuchs and Elite Masculinity in the Neo-Assyrian Empire", 216.

른 점이 있다면 그는 수염이 없어 환관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아시리아의 환관에 대한 기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가족의 배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델러(K. Deller)³⁰⁾와 래드너(K. Radner)³¹⁾는 환관의 개인사를 제거함으로써 그가 아시리아의 왕과 왕실에 전적인 충성을 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생물학적인 모든 관계를 끊음으로 환관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왕과 함께 하는 영원한 현재만이 남는 것이다.³²⁾ 여기서 우리는 잠깐 느헤미야의 가족 배경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의 부인과 자식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분명 그가 하가라의 아들(느 1:1)이며 그의 형제 중에는 하나니(느 1:2)가 있음을 알고 있어 환관의 기록 방법과는 다름을 기억해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환관을 지방의 총독으로 앉힌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자식이 없어 세습을 하거나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왕실의 신뢰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분명 왕의 바로 뒤에 서 있는 인물들이었지만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의 왕궁 기록에 의하면 하렘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다.³³⁾ 만약 하렘에 들어가야 한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의 감시 하에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왕실 여인들과는 일곱 걸음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³⁴⁾ 만약 이러한 규칙이 페르시아의 왕실에도 적용되었다면 느헤미야가 왕은 물론 왕후와 가깝게 있었다(느 2:6)는 사실은 그가 환관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페르시아인들은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의 거세 관습을 받아들였고³⁵⁾ 키루스 시대부터 환관이 있었다. 페르시아의 기록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환관들이 발견되었다.³⁶⁾ 키루스의 근위병들 사이에는 환관이 있었으며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환관은 페티사카스(Petisakas)였다. 환관 바가파테스(Bagapates)는 다리우스 1세(Darius, 기원전 522~486년)의 죽음 이후 7년 동

30) K. Deller, "The Assyrian Eunuchs and their Predecessors", K. Watanabe, ed., *Priests and Officials in the Ancient Near East*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C. Winter, 1999), 303-311.

31) K. Radner, "The Neo-Assyrian Empire", M. Gehler and R. Rollinger, eds., *Imperien und Reiche in der Weltgeschichte: Epochenübergreifende und globalhistorische Vergleiche*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4), 101-120.

32) O. N'Shea, "Royal Eunuchs and Elite Masculinity in the Neo-Assyrian Empire", 218-219.

33) E. F. Weidner, "Hof- und Harems-Erlasse assyrischer Könige aus dem 2. Jahrtausend v. Chr.", *Archiv für Orientforschung* 17 (1954-1956), 261.

34) Ibid., 264-265; E.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137.

35) J. M. Cook, *The Persian Empire* (New York: Schocken, 1983), 136.

36) F. W. König, *Die Persika des Ktesias von Knidos*, *Archiv für Orientforschung*, Beiheft 18, (Graz: Weidner, 1972); G. Meier, "Eunuch", E. Ebeling and B. Meissner, eds.,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vol. II (Berlin/Leipzig: de Gruyter, 1938), 485-486.

안 왕의 무덤을 지켰다. 캄비세스 2세(Cambyses, 기원전 530~522년)의 궁에는 아스파다테스(Aspadates)와 이자바테스(Izabates)라 불리는 유명한 두 환관이 있었다. 우리는 에스더서(1:10)에서도 크세르크세스(혹은 아하수에로, Xerxes, 기원전 486~465년)를 섬긴 일곱 명의 환관을 발견할 수 있다. 에스더서의 일곱 환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헤로도투스(「역사」 8.103-105)에 의하면 헤르모티무스라 불리던 아름다운 소년은 거세된 후 페르시아 궁전으로 보내졌고 크세르크세스 재위 동안 가장 존경받는 환관이 되어 왕실의 아이들을 담당했었다.³⁷⁾

환관들이 왕실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술 맡은 관원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왕권에 도전했다. 예를 들어 에사르하돈의 환관장이었던 아수르-나시르(Aššur-nasir)는 신탁에 힘입어 왕좌를 차지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기원전 620년 환관 신-슈무-레시르(Sin-šumu-lesir)는 아시리아의 왕위에 오르기도 했다.³⁸⁾ 페르시아의 경우 아르타세르세스 1세 때 그의 세 아들이 왕좌 때문에 다투었는데 이때 환관들이 개입하여 왕자들을 위해 음모를 꾸몄다.³⁹⁾ 그 중 환관 아르톡사레스(Artoxares)는 다리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도움을 주고 재무부 장관까지 지내며 권세를 누렸지만 왕비 파리스티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⁴⁰⁾ 기원전 343년 아르타세르세스 3세의 이집트 원정 시 페르시아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환관 바고아스(Bagōas)는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도 했다.⁴¹⁾

3. 예술적 자료 비교

고대 중동 지역의 예술에 있어 왕과 그를 보위하는 신하들의 행렬을 묘사하는 것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 행렬은 알현 장면, 연회 장면, 사냥 장면들에서 주로 목격된다.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은 주제는 연회 장면으로⁴²⁾ 왕좌에 앉은 왕과 배우자가 음식이 가득한

37)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unuchs”, <https://www.iranicaonline.org> (2023. 8. 20.).

38) S. Parpola, “The Assyrian Tree of Life: Tracing the Origins of Jewish Monotheism and Greek Philosoph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2:3 (1993), 161-208; O. N’Shea, “Royal Eunuchs and Elite Masculinity in the Neo-Assyrian Empire”, 219.

39) F. W. König, *Die Persika des Ktesias von Knidos*, 1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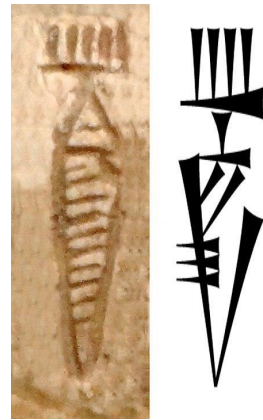
40) M. A. Dandamayev, *Iranians in Achaemenid Babylonia*, Columbia Lectures on Iranian Studies 6 (Costa Mesa, Calif: Mazda Publishers, 1992), 36-37.

41) *Ibid.*, 64-65.

42) I. Ziffer, “From Acemhyk to Megiddo: The Banquet Scene in the Art of the Levant in the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거나 그의 신하들에게 호위를 받고 있다. 왕의 앞에는 때로 전쟁 포로나 조공을 들고 오는 외국 사신들이 줄지어 서 있다. 왕들이 신들이 했던 것처럼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담게 되면서 연회는 더 이상 마시는 행위가 아닌 지배 계급의 전시 수단이 되었다.⁴³⁾ 사냥 장면도 마찬가지로 왕은 사자 같은 맹수를 정복하는 초자연적 힘을 가진 이로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됐다.⁴⁴⁾ 왕은 주변의 그 누구보다 크게 묘사 되었고 가장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다. 그는 한 손에 로투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신에게 왕권을 부여받은 홀을 의미한다.⁴⁵⁾ 그는 다른 손으로 잔을 높게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것은 연회 장면뿐만 아니라 알현이나 사냥 장면에서도 왕이 잔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페르(I. Ziffer)는 왕이 잔을 들고 있는 행위가 왕이라는 수메르 단어 LUGAL(‘great man’)과 아카드어 *šarru*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⁴⁶⁾ 그녀는 할로(W. W. Hallo)의 견해를 인용하여 GAL이 수메르어 그림문자에서 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LUGAL의 초기 의미는 ‘잔의 사람’(the man of the Cup)이었다고 주장했다(<사진 3>).⁴⁷⁾ 왕에게 있어 음료를 마시고 그 음료를 담은 잔이 이렇듯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이를 수행하는 신하 역시 요직의 인물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왕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신하들 중 누가 술 맡은 관원인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대부분의 장면에서 왕은 이미 잔을 들고 있어 그의 잔을 누가 전달했는지 그리고 누가 음료를 제공했

<사진 3> 기원전 2500년경 수메르의 통치자였던 루갈-달루의 조각상에 새겨져 있는 루갈, Museum of Ancient Orient, 이스탄불.



출처: 위키피디아

Second Millennium BCE”, *Tel Aviv* 32:2 (2005), 133.

43) P. Michalowski, “The Drinking Gods: Alcohol in Mesopotamian Ritual and Mythology”, L. Milano, ed., *Drinking in Ancient Societies: History and Culture of Drinks in the Ancient Near East* (Padova: Sargon Srl, 1994), 30-31.

44) I. Ziffer, “From Acemhyk to Megiddo: The Banquet Scene in the Art of the Levant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134.

45) *Ibid.*,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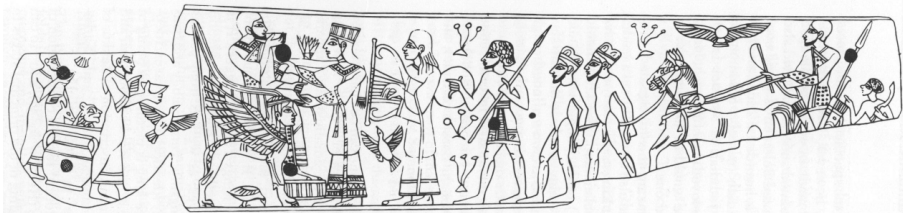
46) *Ibid.*, 134-135.

47) W. W. Hallo, *Origins: The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of Some Modern Western Institutions* (Leiden: Brill, 1996), 191-193; I. Ziffer, “From Acemhyk to Megiddo: The Banquet Scene in the Art of the Levant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135에서 재인용.

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몇몇 자료에서 우리는 술 맡은 관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왕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므깃도에서 발견된 상아 조각판에 새겨진 왕의 연회 장면에서 왕좌에 앉아 있는 왕은 한 손에는 로투스 가지를 다른 한 손에는 넓적한 잔을 들고 있다(<사진 4>).⁴⁸⁾ 그의 왕좌 바로 뒤에 서 있는 남자가 잔을 들고 있고 그의 뒤에는 포도주를 물에 타는 데 사용했던 크라테르가 있다. 그는 소매와 끝단에 장식이 있는 속옷을 입고 등 뒤로 한쪽 깃이 떨어지는 겉옷을 걸치고 있어 그의 뒤에 있는 또 다른 남자와 왕의 앞에 있는 군사 그리고 하프 연주자와는 다른 의상을 갖춘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턱에는 수염이 있어 그가 환관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잔 외에 다른 것은 들고 있지 않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또 다른 사람은 왕의 앞에서 서 있는 왕비로 그녀는 한 손을 왕의 무릎에 대고 있는데 이는 왕에 대한 경의와 복종 그리고 소속을 표현하는 것이다.⁴⁹⁾ 그녀의 다른 손은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긴 수건을 쥐어 왕에게 펼치고 있는데 마치 왕의 몸을 닦아 주고 있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4> 므깃도 상아 조각판, 이스라엘 박물관.



출처: G. Loud, *The Megiddo Ivories*,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5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39), no. 2, Pl. 4.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있는 이러한 장면은 아시리아의 자료에서 많이 발견된 바 있다(<사진 5>). 왕이 신과 같은, 혹은 신에게 축복받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아시리아의 궁전 벽부조와 벽화에는 압도적으로 큰 왕이 신하들의 보필을 받으며 서 있다.⁵⁰⁾ 신하들 가운데는

48) G. Loud, *The Megiddo Ivories*,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5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49) I. Ziffer, "From Acemhyk to Megiddo: The Banquet Scene in the Art of the Levant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141.

50) *Ibid.*, 134-138.

왕보다 덜하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끈처럼 된 관을 쓴 긴 수염을 기르고 있는 신하가 있다. 그는 왕과 마주 보고 서 있으며 두 손을 모아 신하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대체로 아시리아의 다음 왕좌에 앉을 왕세자(Crown-prince)로 해석되고 있다. 수염이 없는 인물들은 환관으로 해석되어 왔다. 환관은 수염이 있는 다른 남성들보다 키가 작는데 로이쉬(K. Reusch)는 환관이 나이가 어려서 거세를 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⁵¹⁾ 또한 환관은 얼굴과 몸이 둥글고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수염이 있는 신하가 상당히 근육질로 표현된 데 반해 환관들은 다소 근육이 없는 몸을 하고 있다.⁵²⁾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긴 치마 형태의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어 외부에서의 거친 일보다는 실내에서 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환관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왕이 원정길에 올랐을 때 그들은 왕의 가구를 옮기고, 왕의 막사와 음식을 준비했다. 전쟁 중에는 왕의 병거에 올라 왕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용병들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 적의 잘린 머리 숫자를 세거나 전리품의 목록을 작성하는 등 세무적인 일을 돌봤다. 무엇보다 환관의 가장 큰 일은 왕을 보필하는 것으로 궁에서 왕의 파라솔을 들고 있거나 왕의 화살이나 칼, 창 등의 무기를 들고 있었다. 환관 중에는 한 손에는 깃털로 만들어진 긴 채를 다른 손에는 수건을 들고 있는 이가 자주 목격된다. 덩고 건조한 아시리아의 기후로 인해 이 두 가지 도구는 왕을 보필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다. 채는 왕 주변에 끼이는 벌레를 쫓아내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람을 부치는 데 사용됐다. 다른 손에 들려 있는 수건은 뜨겁도 상아 조각관에 묘사되었던 왕비처럼 왕의 몸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준비가 항상 되어있어야 했다.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는 종종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채 앞서 언급한 왕세자처럼 손을 모아 쥐고 있는 환관을 발견하곤 한다. 그는 다른 환관들보다 더 많은 장신구를 하고 있고 머리에는 띠 형태의 관을 쓰고 있다. 그는 근엄한 모습으로 왕세자의 뒤에 서서 왕을 마주하고 있으며 전체를 관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환관을 우리는 환관장⁵³⁾ 즉 랍사리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중 누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지 신원을 밝히는 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이다. 왕은 이미 잔을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에게 술이 담긴 잔을 전달했을 것이고 이 장면에서 술을 전달한 사람의 손은 비어 있

51) K. Reusch, ““That Which was Missing”: The Archaeology of Castr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13).

52) O. N’Shea, “Royal Eunuchs and Elite Masculinity in the Neo-Assyrian Empire”, 215.

53) Ibid., 217.

<사진 5> 아슈르나시르팔 II 벽부조, 니므롯, 대영박물관



출처: www.alamy.com

어야 한다. 그런데 환관들 대부분은 손이 비어 있지 않다. 빈손으로 있는 이들은 손을 모아 쥐고 있는 왕세자와 환관장뿐이다. 한때 환관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석된 이유 중 하나는 사르곤 2세의 벽부조에서 환관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사자 머리 형태의 잔을 들고 있고(<사진 6>, 좌) 또 다른 장면에서 손잡이가 달린 같은 형태의 잔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환관이 있기 때문이다.⁵⁴⁾ 그러나 다른 부조들에서 왕이 직접 들고 있는 잔은 넓적한 잔으로 어느 왕도 사자 머리 형태의 잔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잔을 든 환관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벽부조에서 종종 왕이 잔을 들고 있는 맞은편에 한 손에는 깃털 달린 채를 한 손에는 작은 국자 형태의 도구를 들고 서 있는 환관을 발견한다(<사진 6>, 중앙).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여과기로 포도주를 잔에 따를 때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그가 왕에게 술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누군가 술을 따라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환관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는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 왕의 말을 적군에게 전달했던 랍사게라는 호칭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의미였고 아카드의 왕 사르곤 역시 왕이 되기 전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두 손을 마주 쥐고 있는 왕세자가 이 술잔을 들고 온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후 페르시아에서도 키루스를 비롯하여 왕실의 유력한 귀족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⁵⁵⁾ 우리는 술 맡은 관원의 우두머리는 왕세자였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니네베에서 발견된 산헤립의 라기스 전쟁을 묘사한 벽부조에서 산헤립은 왕세자와 마주 보고 있는데 그가 랍사

54) 이 잔은 오히려 종교적 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5) 페르시아 왕실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게일 수 있다(<사진 6>, 우).

<사진 6> 좌: 사자 머리 잔을 들고 있는 환관의 벽부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중앙: 아슈르나시르팔 II와 환관의 벽부조, 대영박물관
우: 라기스 전쟁에서 왕좌에 앉아 있는 산헤립의 벽부조, 대영박물관



출처: www.alamy.com

왕과 신하들의 행렬 장면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시리아 왕의 연회 장면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니네베 서쪽 궁전에서 발견된 아슈르바니팔의 벽부조이다(<사진 7>).⁵⁶⁾ 침대 왕좌에 기대어 누워 있는 아슈르바니팔은 왼손에는 로투스 가지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잔을 들고 있다. 반대편 왕좌에 앉아 있는 왕비 역시 잔과 로투스 가지를 들고 있다. 엘람 왕을 참수한 후 그 머리를 반대편 가지에 걸어두고 아슈르바니팔은 왕비와 자축을 하고 있다.

<사진 7> 왕비와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는 아슈르바니팔 벽부조, 대영박물관



출처: www.alamy.com

56) K. Deller, "Assurbanipal in der Gartenlaube", *Baghdader Mitteilungen* 18 (1987), 229-238.

그런데 이 연회에는 그의 환관이나 신하들이 보이지 않는다. 왕과 왕비를 보필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여인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리아의 하렘은 환관이 함부로 드나들거나 왕의 여인들을 단독으로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결국 아슈르바니팔과 왕비의 연회에는 왕의 남성 신하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 연회에는 왕의 환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손에는 깃털이 달린 긴 채를 또 다른 손에는 수건을 들고 있는 여인들이 왕과 왕비의 각각 뒤에 서 있다. 이 연회에서 술 맡은 관원 대신 왕과 왕비에게 술을 대접한 이들은 왕비의 뒤 켤 중앙에 음식 그릇을 들고 있는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페르시아 왕실의 술 맡은 관원

이제 우리는 페르세폴리스의 벽부조로 돌아가 슈미트와 월슨이 느헤미야 본인이라고까지 제시한 인물을 살펴보고자 한다(<사진 1>). 이 벽부조의 중앙에는 다리우스 1세가 왕좌에 앉아 있다. 그는 수염을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기르고 있으며 왕관을 쓰고 있다. 그의 오른손에는 지팡이가 왼손에는 로투스 가지가 들려 있다. 유사한 의상을 입고 다리우스 1세의 뒤에 서 있는 긴 수염의 키 큰 남자는 왕세자 크레스크세스로 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왼손에는 왕의 홀을 상징하는 로투스가 들려 있기 때문이다. 슈미트와 월슨은 왕세자의 뒤에 서 있는 인물을 느헤미야로 보았다. 그는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신하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신하와는 확연히 다른 두건(혹은 모자)을 쓰고 있다. 월슨은 그가 쓰고 있는 두건이 페르시아인도, 메디아인도 아닌 블랙 오벨리스크에 등장하는 예후가 쓴 유다의 두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⁵⁷⁾ 그의 두건은 머리는 물론 얼굴 옆선을 따라 턱 부분까지 가리고 있어 오직 눈, 코, 입만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 슈미트는 수염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환관이라고 정의했다.⁵⁸⁾ 그는 왼손에 수건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왼손의 손목을 그러쥐고 있다. 페르세폴리스의 또 다른 벽부조에서 우리는 왕의 뒤에 서 있는 같은 두건을 쓴 사람을 발견한다. 이번에 그는 한 손에는 수건을 다른 손에는 깃털로 만들어진 긴 채를 왕좌에 앉은 왕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57) M. Wilson, "ARCHAEOLOGY AND THE BIBLE: NEHEMIAH APPEARS SIX TIMES AT PERSEPOLIS".

58) E. F. Schmidt, *Persepolis I: Structures, Reliefs, Inscriptions*, 169.

있다(<사진 8>, 좌). 윌슨과 슈미트는 이들이 같은 사람으로 아시리아 왕의 연회 행렬에서 왕의 뒤에 서 있던 환관과 같은 직책을 가진 자로 보았다.⁵⁹⁾ 그들은 보우만(R. A. Bowman)이 페르시아에서 왕과 가장 가깝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수건과 깃털 달린 긴 채를 각 손에 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신하가 술 맡은 관원이며 동시에 수염이 없기 때문에 환관이었다⁶⁰⁾고 주장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람을 느헤미야로 정의한 것이다.⁶¹⁾ 그러나 앞서 아시리아의 왕실에서 발견한 유사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환관을 우리는 이미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외국 의상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그를 느헤미야로 정의하기는 더 어렵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환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페르세폴리스의 계단 벽부조에 새겨져 있는 왕의 음식을 나르고 있는 다른 신하들이 같은 두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독특한 두건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사진 8>, 중앙). 더불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신하들의 두건 사이로 코 밑과 턱에 난 수염이 묘사되어 있어 이 두건이 환관의 특징이라고도 정의할 수도 없다. 또한 음식을 나르고 있는 신하들 가운데 하나는 아시리아 왕실에서 보던 납작한 잔을 양손에 들고 있어 오히려 그가 술 맡은 관원이었을 확률이 높다. 또 다른 벽부조에서는 수건과 깃털 달린 긴 채를 들고 왕의 뒤에 서 있는 인물이 수염은 없지만 앞서 언급한 두건을 쓰고 있지 않다(<사진 8>, 우). 아마우치는 다양한 스타일이 왕의 신하들에게 반영되었다고 보았다.⁶²⁾ 더구나 이 벽부조들 어디에도 왕이 잔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행렬에 술 맡은 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약 술 맡은 관원이 있었다면 이 장면에서는 왕의 뒤에 있는 왕세자가 술 맡은 관원장을 담당했을 것이다.

페르세폴리스의 벽부조에서 느헤미야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관습을 이해한다면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왕실에서 높은 직책에 있어야만 기록될 수 있다. 그리스인으로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투스, 크세노폰, 크테시아스는 페르시아의 왕들이 왕이 되기 이전에 각각 왕실의 다양한 직

59) Ibid, 165; M. Wilson, "ARCHAEOLOGY AND THE BIBLE: NEHEMIAH APPEARS SIX TIMES AT PERSEPOLIS".

60) R. A. Bowman, "The Book of Ezra and the Book of Nehemiah", G. A. Buttrick, et al., eds., *The Interpreter's Bible*, vol. 3.(Nashville: Abingdon Press, 1954), 671.

61) E.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138.

62) Ibid., 139.

<사진 8>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된 벽부조, 이란



출처: www.alamy.com

책을 맡고 있었다고 기록했다.⁶³⁾ 크테시아스(Ctesias)에 의하면 앞서 아카드의 사르곤이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키루스 역시 ‘술 맡은 관원’이었다. 키루스는 또한 ‘지팡이를 든 자들의 주인’ 그리고 ‘시종들의 주인’이기도 했다. 다리우스 1세는 키루스의 ‘화살통 운반자’이자 캄비세스의 ‘창 운반자’였다. 다리우스 3세는 왕이 되기 전 ‘편지 운반자’라는 직책에 있었다. 왕이 되기 전 이들은 왕세자로서 궁정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⁶⁴⁾ 왕실에는 ‘의자 운반자’, ‘발판 운반자’, ‘활과 화살 운반자’, ‘식량 배급자’ 등 다양한 직책이 있었는데 모두 높은 지위에 속했다.⁶⁵⁾ “그러나 왕실 직책이 반드시 그 직책을 맡은 궁인에게 기대되는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왕실 직책을 가진 귀족은 국가 의식에서 규정된 역할을 ‘연기’했을 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⁶⁶⁾ 페르세폴리스 석판에서 술 맡은 관원의 임기는 2년으로 거세하지 않은 젊은 귀족들에게 맡겨졌다.⁶⁷⁾ 그러나 그들이 직책을 반드시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직책은 특권을 가진 왕실 관리들에게 부여된 명예로운 호칭이었다.⁶⁸⁾ 그들은 동시에 여러 직책을 한 번에 담당할 수도 있었다.⁶⁹⁾ 왕은 왕실 직책을 맡은 이들에게 의

63) M. A. Dandamayev, “Courts and Courtiers I.”, <https://www.iranicaonline.org>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2023. 6. 20.).

64) F. W. König, *Die Persika des Ktesias von Knidos*, 177.

65) M. A. Dandamayev, “Courts and Courtiers I.”.

66) Ibid.

67) W. Hinz, “Achämenidische Hofverwaltung”, *ZA* 61 (1971), 291.

68) M. A. Dandamaev and V. G. Lukonin, *The Cultural and Social Institutions of Ancient Ir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38-139.

69) Ibid.

복, 말, 황금 장신구, 광대한 토지 등을 하사했다. 이들 중에는 궁에 살면서 마을과 도시 전체를 선물로 받은 외국인도 있었다.⁷⁰⁾ 이러한 관습은 수산 궁에 있었던 외국인 느헤미야가 귀족의 직책이었던 술 맡은 관원을 맡으면서 동시에 지방 총독이라는 또 다른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해 준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그들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은둔 생활을 고수했는데 다리우스 1세의 경우 어머니와 그의 부인들 중에도 중요한 부인들과 가장 고귀한 여섯 씨족의 대표만을 상대했다.⁷¹⁾ 왕은 매일 궁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지만 별도의 방에서 왕비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다.⁷²⁾ 그들은 황금 다리가 달린 소파에 앉아 커튼을 사이에 두고 손님을 만났다.⁷³⁾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고 있을 때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거리가 매우 가까웠음을 이야기한다. 더구나 왕의 곁에는 왕후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는 느헤미야가 커튼 안쪽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앞서 언급한 아시리아의 하렘에서 환관이 왕후와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관습이 적용되었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환관이 아니라 한때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의 직책이기도 했던 높은 지위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만약 환관이었다면 그는 아시리아의 환관들처럼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배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 그의 아버지와 형제를 언급하고 있다.

야마우치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사야 56:3-5의 거세한 사람마저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환관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었기에 그가 그의 직책을 숨기고 술 맡은 관원이라고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⁷⁴⁾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드러나고 있는 유대인 귀환 공동체가 보편주의보다는 배타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가운데(예: 스 10장; 느 13:1-3) 만약 느헤미야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 23:1)는 율법에 명시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였다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적 지위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 어디에도 그가 환관이기 때문임을 언급한 구절은 없다. 그러므로 그가 사리스라는 단어와 직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마쉬케라고 소개한 것은 그것이 그의 직책이

70) Ibid.

71) M. A. Dandamayev, “Courts and Courtiers I.”

72) Ibid.

73) Ibid.

74) E. M. Yamauchi,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136.

였기 때문이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직책을 달리 부르거나 포장할 필요가 그에게는 없었다.

<주제어>(Keywords)

nehemiah, 술 맡은 관원(마쉬케), 환관/내시(사리스), 왕실의 직책, 페르세폴리스 벽부조.

Nehemiah, Cup-bearer(mašqæ), Eunuch(sārīs), Royal position, Reliefs of Persepolis.

(투고 일자: 2024년 1월 25일, 심사 일자: 2024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4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Rahlf's, A., ed., *Septuaginta*,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62.
- Albright, W. F., "A Brief History of Judah from the Days of Josiah to Alexander the Great", *BA* 9 (1946), 1-16.
- Bowman, R. A., "The Book of Ezra and the Book of Nehemiah", G. A. Buttrick, et al., eds., *The Interpreter's Bible*, vol. 3., Nashville: Abingdon Press, 1954.
- Bright, J., *A History of Israel*,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59.
- Cook, J. M., *The Persian Empire*, New York: Schocken, 1983.
- Dandamayev, M. A., "Courts and Courtiers I.", <https://www.iranicaonline.org>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2023. 6. 20.).
- Dandamayev, M. A., *Iranians in Achaemenid Babylonia*, Columbia Lectures on Iranian Studies 6, Costa Mesa, California: Mazda Publishers, 1992.
- Dandamaev, M. A. and Lukonin, V. G., *The Cultural and Social Institutions of Ancient Ir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Deller, K., "Assurbanipal in der Gartenlaube", *Baghdader Mitteilungen* 18 (1987), 229-238.
- Deller, K., "The Assyrian Eunuchs and their Predecessors", K. Watanabe, ed., *Priests and Officials in the Ancient Near East*,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C. Winter, 1999, 303-311.
-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unuchs", <https://www.iranicaonline.org> (2023. 8. 20.).
- Goedicke, H., "Was Magic Used in the Harem Conspiracy Against Ramesses III?", *JEA* 49 (1963), 71-92.
- Hinz, W., "Achämenidische Hofverwaltung", *ZA* 61 (1971), 260-311.
- Jonckheere, F., "L'Eunuque dans l'Égypte pharaonique", *Revue d'Histoire des Sciences* 7:2 (April-June 1954), 139-155.
- Kadish, G. E., "Eunuchs in Ancient Egypt?", J. A. Wilson, ed., *Studies in Honor of John A. Wil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9, 55-62.
- Kelly, B. H., *Ezra, Nehemiah, Esther, Job*, Layman's Bible Commentary 8,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62.
- König, F. W., *Die Persika des Ktesias von Knidos*, Archiv für Orientforschung, Beiheft 18, Graz: Weidner, 1972.
- Kwasman, T., "15 Loanwords in Jewish Babylonian Aramaic: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M. J. Geller, ed., *The Archaeology and Material Culture of the Babylonian Talmud*, Leiden: Brill, 2015, 333-386.
- Langdon, S., *The Weld-Blundell Collection, vol. II.: Historical Inscriptions*,

- Containing Principally the Chronological Prism*, W-B. 444,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3.
- Loud, G., *The Megiddo Ivories*,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5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 Mazar, B., et al., “Ein Gev: Excavation in 1961”, *IEJ* 14 (1964), 1-49.
- Meier, G., “Eunuch”, E. Ebeling and B. Meissner, eds.,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vol. II, Berlin/Leipzig: de Gruyter, 1938, 485-486.
- Michalowski, P., “The Drinking Gods: Alcohol in Mesopotamian Ritual and Mythology”, L. Milano, ed., *Drinking in Ancient Societies: History and Culture of Drinks in the Ancient Near East*, Padova: Sargon Srl, 1994, 27-44.
- Mitchell, T. C., “Eunuch”, M. C. Tenney, ed.,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II,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975, 415.
- Myers, J. M., *Ezra, Nehemiah*, The Anchor Bible 14, New York: Doubleday, 1965.
- “Nehemiah”, <https://en.wikipedia.org> (2023. 7. 10.).
- N’shea, O., “Royal Eunuchs and Elite Masculinity in the Neo-Assyrian Empire”, *Near Eastern Archaeology* 79:3 (2016), 214-221.
- Parpola, S., “The Assyrian Tree of Life: Tracing the Origins of Jewish Monotheism and Greek Philosoph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2:3 (1993), 161-208.
- Posener, G., *La première domination perse en Égypte*, Le Caire: Institut français d’archéologie orientale, 1936.
- Radner, K., “The Neo-Assyrian Empire”, M. Gehler and R. Rollinger, eds., *Imperien und Reiche in der Weltgeschichte: Epochenübergreifende und globalhistorische Vergleiche*,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4, 101-120.
- Redford, D. B., *A Study of the Biblical Story of Joseph (Genesis 37-50)*, Leiden: Brill, 1970.
- Redford, S., *The Harem Conspiracy*,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2.
- Reusch, K., ““That Which was Missing”: *The Archaeology of Castr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13.
- Schmidt, E. F., *Persepolis I: Structures, Reliefs, Inscrip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Schultz, S. J., *The Old Testament Speaks*, New York: Harper & Row, 1960.
- Starr, I., *Queries to the Sungod: Divination and Politics in Sargonis Assyria*, State

- Archives of Assyria 4,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0.
- The Electronic Text Corpus of Sumerian Literature, “The Sargon Legend”, <http://etcsl.orinst.ox.ac.uk> (2023. 6. 20.).
- Vergote, J., *Joseph en Egypte: Genèse chap. 37-50 à la lumière des études égyptologiques récentes*, Louvain : Publications Universitaires, 1959.
- Weidner, E. F., “Hof- und Harems-Erlasse assyrischer Könige aus dem 2. Jahrtausend v. Chr”, *Archiv für Orientforschung* 17 (1954-1956), 257-293.
- Wilson, M., “ARCHAEOLOGY AND THE BIBLE: NEHEMIAH APPEARS SIX TIMES AT PERSEPOLIS”, <https://www.academia.edu> (2023. 6. 20.).
- Yamauchi, E. M., “Was Nehemiah the Cupbearer a Eunuch”, *ZAW* 92 (1980), 132-142.
- Ziffer, I., “From Acemhyk to Megiddo: The Banquet Scene in the Art of the Levant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Tel Aviv* 32:2 (2005), 133-167.

<Abstract>

Nehemiah: Cup-bearer? Eunuch?

MiYoung Im

(International Bible Museum / AnYang University)

Nehemiah himself said, “I am a cup-bearer of Artaxerxes, the king of Persia, in the palace of Susa” in the book of Nehemiah 1:11. Besides him, the cup-bearer called *mašqæ* (מִשְׁקָה) in Hebrew is found in the story of Joseph when he was in an Egyptian prison (Gen 40:1-23; 41:9), and among the servants in Solomon’s palace (1Ki 10:5; 2Ch 9:4). Various artifacts found in Egypt, Canaan, Assyria, and elsewhere depicting scenes of royal banquets show figures standing with the king’s cup, suggesting that this position did exist in ancient times. However, some scholars, including J. M. Myers, have argued that Nehemiah was also an eunuch because the person holding the Assyrian king’s cup has the appearance of a beardless eunuch. They argue that Nehemiah was a Persian royal eunuch because he mentions his father and brothers by name but not his wife and children; because he served the queen (Neh 2:6); and because the Alexandrian Codex uses the Greek word for the cup-bearer *οἰνοχόος* while the Vatican Codex and Sinai Codex use *εὐνοῦχος* meaning eunuch.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Nehemiah called himself a cup-bearer because the position of the eunuch in the ancient time was religiously exclusive (Lev 22:24; Deu 23:1). However, E. Yamauchi and some other scholars argued that a cup-bearer is a distinct designation for an officer in charge of drinks because the Hebrew word *סָרִיס* (*sārîs*) is used for the eunuch. He presented several literary and archaeological sources from Persia that could prove this. However, he still left a little possibility of Nehemiah being an eunuch.

This paper therefore seeks to build upon and develop Yamauchi’s ambiguously concluded thesis and to clarify Nehemiah’s exact position in the royal culture of the ancient Middle East. First, the terms *mašqæ* and *sārîs* were compared and their roles looked up, noting that the chief *mašqæ* was referred to as *rabšaqæ* and the head eunuch as *rabsārîs* in 1 Kings 18:17. This suggests that the two terms refer to distinctly different roles. By searching for visual differences between *mašqæ* and *sārîs* in scenes of royal banquets, hunting, and

warfare in the ancient Middle East, it was found that they had similar but different appearances and roles. In particular, M. Wilson and E. F. Schmidt took closer look at the Persepolis wall reliefs that were the basis for claiming that Nehemiah was a Persian royal eunuch. According to such argument, a Persian royal eunuch wore hoods similar to the Judahite hood worn by Jehu on the Black Obelisk. However, many of the people wearing the same hood could be identified as subjects who were not acting as eunuchs.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is procession necessarily included a cup-bearer since the king is not shown holding a cup in any of these wall sculptures. If there were, the crown prince behind the king in this scene would have served as the head of the cup-bearers. The failure to find Nehemiah in Persepolis wall reliefs is not to say that he did not serve in the Persian royal court, or that he did not hold a high position as a cup-bearer. We know from ancient historians (e.g., Herodotus, Xenophon, Xerxes, etc.) that Nehemiah the foreigner in the palace of Susa was able to hold the position of the cup-bearer, which was a nobleman's position, and at the same time hold another position as a provincial governor. Despite knowing the word and title of *sārís*, Nehemiah therefore introduced himself as *mašqæ* because it was his position in the Persian royal court.